

무역투자자유지역의 효과와 유형 분석

이 상 호 *

〈 목 차 〉

- | | |
|---------------------------|--------------------------------|
| I. 서언 | IV. 무역투자 자유지역의 설치
필요성 |
| II. 무역투자 자유지역의 개념
및 효과 | V. 무역투자 자유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 III. 무역투자 자유지역의 유형분석 | |

I. 서 언

21세기를 몇년 앞두고 세계경제는 실질적인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교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체제를 대신할 세계무역기구(WTO)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UR협정 조인과 함께 출범하였다. WTO 출범과 함께 1970년대 중반부터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경제의 자유화 및 개방화 추세가 교통, 통신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힘입어, 더욱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NAFTA, EU 등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경향도 동시에 강화되고 있어 각 지역경제간 경쟁 또한 더욱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끼리 자유무역을 실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유럽 단일시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줄 유럽 단일 통화의 창설이 1993년 11월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공식화된 바 있다.

*세종대학교 경제·무역학과 부교수, 경제학 박사.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은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여 무역 통상관계에서 지역적 유대를 강화하였으며, 1994년 4월에는 이들 3국이 북미금융그룹 결성에 합의함으로써 금융면에서도 지역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은 아·태 경제협력공동체(APEC)를 중심으로 상호경제협력을 모색하여 왔는데 1993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지역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범세계적 경제통합, 경제적 지역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세계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우리경제의 국제화 및 개방화의 실질적인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방화는 21세기에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실현해야 할 필연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개방화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제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국제화·개방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선 대외적으로 WTO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구환경협상 등에 대응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선도적, 교량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행정규제의 개혁과 SOC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고, 공적자를 필두로 모든 국민의 의식과 관행을 국제화시키는 경제제도 및 관행의 국제화 추진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우리경제는 저임금·단순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의 발전단계를 이미 넘어 섰고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산업 중심의 발전단계에 접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과정을 무리없이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 비해 크게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난 198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¹⁾

1. 1991년에는 네델란드의 아람코社가 쌍용정유와 합작하기 위해 4.7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1988년 수준을 예외적으로 넘어섰음.

이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행정규제와 노사분규의 심화, 토지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등 투자환경의 약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 인허가 및 신고절차의 복잡성, 투자제도의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는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제조업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자유화율이 97.6%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의해 인가조건과 투자지분 등의 측면에서 커다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에서는 국제화, 개방화의 일환으로 행정규제 완화, 제도의 투명성 제고, 임금체계의 개선 등 투자환경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복잡다기한 행정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등의 전반적인 투자여건은 전국토에 걸쳐 개선하기에는 많은 자원과 시일이 요구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 차선택²⁾이라 할 수 있는 무역투자자유지역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된다. 이는 국내의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제의 극소화, 국제적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비롯한 기업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매력있는 투자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하나의 시범지역으로 삼아 그 성과를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무역투자자유지역의 경제적 의의, 설치 필요성,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21세기를 향한 우리경제의 발전방향을 개략적이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II. 무역투자 자유지역의 개념 및 효과

가. 무역투자 자유지역의 개념

무역투자 자유지역이란 특정구역이 지정되어 구 구역내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일정한 경제활동 분야에 대해 관세, 조세, 금융, 행정상 예외적인 우대 조치가 허용되는 특별지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별지역은 공간적·지리적 구분없이 순수히 법적인 성격만을 갖는 형태도 있고, 법적인

2. D. Spinanger, "Objectives and Impact of Economic Activity Zones-Some Evidence from Asia", *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20 Heft 1, 1984, p. 65

성격과 지리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형태도 있다. 순수히 법적인 성격만을 갖는 형태는 주요 금융이나 보험서비스 등에 적용되는데, 유로통화시장 및 뉴욕의 free banking zone과 런던의 Lloyd's와 같은 free insurance zone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법적인 성격과 지리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유형으로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자유항(free port), 통과지대(transit zone) 자유구역(free perimeter) 등을 들 수 있는데 본 고에서는 주로 국토의 특정지역을 방책 등을 통해 타지역과 분리시켜 운영하는 자유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나. 무역투자 자유지역의 특징

무역투자 자유지역의 세부적인 특징들은 그 유형에 따라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징들을 정리하면 원자재의 무관세 수입, 각종 세제상 혜택, 간소화된 행정절차, 사회간접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무역 투자자유지역내에서 수출상품은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는 무관세로 그리고 수량의 제한없이 수입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조달되는 원자재, 중간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무역투자자유지역과 국내 경제와의 backward linkage 효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rebate나 drawback 등을 통한 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역투자자유으로 유치된 외국인 기업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등이 보통 3~10년 기간 동안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무역투자 자유지역은 입주기업들의 행정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납기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다. 나아가 원자재, 자본재 등의 수입과 생산된 상품의 수출에 필요한 각종 절차 및 서류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면제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역투자 자유지역내에는 기타 지역보다 우수한 도로망,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설치되며, 또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에 대한 보조가 제공되고 건물 및 토지의 임대료 또한 다른 지역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다. 무역투자 자유지역의 경제적 효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무역투자 자유지역을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선진국 기업의 자본 및 기술을 도입하고 수출지향적인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경제효과는 설치국 貿易增進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다. 자유지역내에서의 관세면제와 무역의 규제·왜곡 요인의 제거는 보호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무역을 증진시키게 된다. 자유지역에서는 상품의 수출입이 복잡하다고 까다로운 통관철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자유지역내의 일정공간을 상품전시장으로 허용하여 국제 상품시장이 형성됨으로써 국제간 상품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지역, 특히 생산중심형 자유지역인 輸出加工區域(EPZ)은 대외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는 발전도상국에 있어 세계시장과의 접점을 형성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지향하는 국가가 제한된 특정지역에 수출목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적절한 투자환경을 제공하여 수출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세계시장과 연계를 맺기 위한 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EPZ설치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로는 외환수입, 고용 및 소득증대, 국내 기업에 의한 선진외국기업의 기술 및 경영기법의 습득을 통한 기술파급효과, 국내 근로자의 기술 및 숙련도 증대, 외국투자자 및 바이어 등의 국내경제에 대한 관심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EPZ의 활성화를 위해 제공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기능들은 EPZ의 바깥에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됨으로써 부수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게 된다.

다음의 <표-1>은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설치하고 있는 수출가공구(EPZ)의 후생효과를 항목별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EPZ 설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주로 고용과 외환 수입증대 효과로부터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이 고용증대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무역투자 자유지역은 간접적인 노동수출의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자유지역 설치로 인한 고용창출은 크게 직접적인 고용증대 효과와 간접적인 고용증대효과로 구분되는데 간접적인 고용증대 효과는 다시 거시경제효과, 후방

〈표-1〉 수출가공구(EPZ)의 경제효과 (1982년 기준)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고 용	39	4	111	59
외 환 수 입	65	0	94	72
국산원자재사용	16	5	18	3
조 세 수 입	18	23	10	11

주 : 한국의 경우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이 분석 대상임.

자료 : Warr, P. "Export Promotion Processing Zones", in C. Milner(ed.), Export Promotion Strategies: Theory and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1990.

연계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거시경제효과란 무역투자 자유지역에 유치된 다국적 기업들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소득을 국내경제 활동에 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창출효과를 일컫는데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보다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³⁾ 그리고 후방연계효과란 무역투자 자유지역에 고용창출 효과를 말하는데 이 효과는 유치되는 상업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따른 외환수입 증대 효과는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국내 기업들로부터 구입하는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지불 등으로 구성된다. 이 효과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경우 1971-1993년 기간 동안 총 95억달러 정도의 외환수입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성에 있어서는 국산원부자재의 구매에 따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무역투자자유지역의 유형분석

여러 형태의 무역투자 자유지역을 해당되는 지역의 범위 및 설치 목적 등을

3. ILO/UNCTC,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Export Processing Zones, 1988.

〈표-2〉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외화가득 추이

연도	가득액 (1,000 \$)	구성비(%)		
		임금	국산원자재	기타 ¹⁾
1975	71,982	28.9	42.1	29.0
1980	333,023	17.0	42.9	40.1
1985	412,647	19.3	44.4	36.3
1990	758,111	24.2	40.4	35.4
1993	911,421	22.5	45.6	31.9

주 : 1) 공공요금, 임대료 등
 자료 : 마산 수출자유지역 관리소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국제교역 중심형 자유지역, 생산중심형 자유지역, 그리고 국제교역 중심형과 생산중심형을 결합한 형태의 국제 무역투자 자유지역 등을 들 수 있다.

가. 국제교역 중심형 자유지역

이러한 자유지역은 국제교역활동상의 규제완화를 통해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주된 목적을 갖는 유형인데, 여기에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자유항(free port), 통과지대(transit zone), 자유구역(free perimeter) 등이 포함된다.

먼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란 국내의 여타지역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일정구역으로서 구역내의 수입물품에 대해 쿼터, 관세, 물품세, 외환통제 및 기타 각종 국내적인 규제 조치가 면제되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 지역으로 반입된 물품들은 임의로 저장, 분류, 전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에 입지한 공장에서 가공, 조립되어 해외로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유항(free port)이란 특정항구 또는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내로의 상품 및 원자재의 반입이 비관세로 이루어지는 규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환사정 등을 이유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다.

통과지대(transit zone)란 주도 해안을 접하지 않은 내륙국가가 대외무역상품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고자 인접해안국과 운송협정 등을 체결하고 인접해안국의 교통요지에 설치한 일종의 비관세지역을 말한다. 이 유형의 경우에는 제품의

가공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품의 보관, 분류 등만이 허용되고 있다.

자유구역(free perimeter)은 자유항과 비슷한 유형이나 경우에는 보통 관세 면제가 아니라 관세 할인이 혜택이 주어지며, 식품, 약품류 등 생활필수품에 한하여 인근 지역에서의 소비를 위한 가공처리가 허용되게 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갖는 자유지역은 주로 미국대륙의 교통요지, 상업 및 공업중심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1989년 현재 157개의 General Purpose Zone과 142개의 Subzone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나. 생산중심형 자유지역

이 유형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후발개도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단형 및 광역형 수출가공구(EPZ : Export Processing zone)와 자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외국의 첨단기술 기업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공단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공단형 수출가공구(Fenced Export Processing Zone)

Fenced EPZ란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설치된 특정구역으로서 수입관세의 면제, 통관절차의 간소화, 관련 행정 서비스 지원 등이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특별구역을 의미한다.

이 유형은 주로 대외지향적 공업화를 촉진하는 후발개도국들의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 인접한 300ha 이하의 중소규모의 공업단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Fenced EPZ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우대조치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기계설비, 원자재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 공장부지 및 표준공장의 임대, 전력·용수 등의 기반시설 공급 등 자원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Fenced EPZ는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1990년 현재 86개가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의 마산 수출자유지역, 대만의 까오슝 수출가공구 등이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입주기업들이 대부분 노동집약적 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국 경제 발전에 기여도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

2. 광역형 수추가공구(Unfenced EPZ)

Unfenced EPZ의 설치목적은 근본적으로 Fenced EPZ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유형은 특정공단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이나 항만 인근의 광역적인 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관세의 감면,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유형은 Fenced EPZ처럼 공장용지 및 표준공장 등의 산업기반시설, 특정 관리기관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 특정구역내에서의 규제완화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Unfenced EPZ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멕시코의 마킬라도라(Maquiladoras)제도⁴⁾를 들 수 있다.

3. 특정공단

이것은 기술집약업종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공단 또는 일정지역을 말한다.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룩된 국가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노동집약적 단순 가공조립 업종보다는 첨단 고도기술부문의 선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와 같은 특정공단을 설치하고 있다.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의 특징은 EPZ와 달리 수출제한 및 국내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기술개발 및 첨단제품 생산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이 제공되고 있다. 대만의 新竹科學工業園區는 이러한 외국선진기술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EPZ의 보완형태로서 추진된 특별지역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다. 무역·투자 복합형 자유지역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국제교역중심형 생산중심형 자유지역을 결합한 형태이다. 이 유형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무역, 생산, 금융 등 경제활동에 대한 폭 넓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수입관세의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의 실시, 외환자유화를 통한 자유로운 국제금융 활동의 보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의 최소화 및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국제공항, 국제항, 국제 비즈니스센터 등의 완

4. 마킬라도라 제도는 1964년 미국이 멕시코 노동자의 미국입국을 금지함에 따라 미국 기업의 유치를 위해 미국과의 국경지역에 광역지역을 지정하여 실시하였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수는 1990년 현재 약 1900여 개에 달하고 고용은 약 45만명에 이르고 있음.

비 등이 이루어진 특징은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국제자유무역도시가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수입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여 완벽한 자유무역이 실시되고 있고 외환자유화도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다국적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정비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효율적인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IV. 무역투자 자유지역의 설치 필요성

가. 세계경제의 국제화 추세에의 적극 대응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기업 활동에 있어서 국내외의 구분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자유화와 개방화라는 세계경제의 급격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경쟁의 격화를 이겨나가기 위한 기업경영의 국제화를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 개도국을 불문하고 세계 각국은 여러 가지 유리한 투자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세계적 기업의 자국내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정세에 더 많이 기여한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더욱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생산, 판매 등 제반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투자 여건 및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기업들은 엔고 지속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주요 핵심 부품까지 해외 생산기지로의 이전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며,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여타 국가에 비해 철강, 화학 등 소재산업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고 기술인력의 수준이 높으며 사회간접자본도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 한국을 주요 투자대상국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직접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역투자지역의 확대 설치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나. 외국인 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

무역투자지역의 설치는 선진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국제화 전략 추구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철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간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폐쇄적 의식, 임금·토지가격, 금융비용 등 생산요소가격의 급상승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제조업부문의 외국인 투자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표-3〉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반 투자환경이 선진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의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도 열악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은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국가에 비해서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⁵⁾

이와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이 극히 부진한 이유로 특히 각종 행정규

〈표-3〉 제조업부문 외국인 투자 실적

(단위 : 건, 100만달러)

	건수	금액
1987	321	774
1988	273	742
1989	194	729
1990	135	583
1991	108	1069
1992	82	648
1993	80	527

자료 : 재무부, 「외국인 투자 동향」

제, 인허가 및 신고절차의 복잡성, 투자제도의 투명성 부족 등이 국내의 거시경제여건의 악화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 상공자원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회사설립시 가장 애로를 겪었던 사항으로 인가절차 등 정부의 행정절차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 관련

5. 1988~92년 기간중 한국은 55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중국(876억달러), 태국(304억달러), 말레이시아(247억달러) 등에 크게 뒤졌음.

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성과가 단시일 내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거시경제정책의 무리없는 추진을 위

〈표-4〉 외국인 투자기업의 회사설립시 애로 요인

애 로 요 인	구성비(%)
정부의 행정절차	74.4
필요한 인력의 확보	11.0
관련 정보의 부족	8.5
공장용지의 확보	6.1

자료 : 상공자원부, 「외국인 투자기업 실태조사 결과」, 1994. 1

해서도 정부가 모든 기업에 대해 해외자본 및 인력의 활용을 허용하고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국내의 특정지역을 무역·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부터 우선 관련 규제의 완화 및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 행정서비스 품질의 국제수준으로의 제고, 기업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등 매력있는 투자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오히려 합리적인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선진기술의 이전·점목의 활성화

최근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상황을 보면 의류, 신발 등 저가·저급의 노동집약적 상품에서는 후발개도국에게 뒤지고 있고, 고가·고급의 기술·지식 집약적 분야에서는 선진국에 아직 많이 뒤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산업의 샌드위치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고도화 방향은 기술·기능집약적 상품의 수출산업화 그리고 선진 공업국이 주도하고 있는 첨단기술상품의 산업화를 적극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선진외국기술의 이전을 위한 기술도입 및 제휴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술도입 건수는 1988년의 751건에서 1992년에는 533건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도입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점차 강화되고 있는 기술보호주의 추세하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개발 노력에 못지 않게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선진기술의 이전 및 접목을 위한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무역투자자유지역의 설치는 현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V. 무역투자자유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현재 정부에서도 위에서 열거된 제반 무역투자 자유지역의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광주 평동과 천안에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공업단지 설치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대안들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안 중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조치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광주 평동이나 천안의 경우 지역개발의 성격이 보다 강하므로 외국인 전용공단에 그치지 말고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주대상기업은 무역투자 자유지역의 설치 목적에 맞게 첨단산업 및 고도기술 관련 업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입주대상기업을 첨단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당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 비해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둘째, 투자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외환관리에 대한 제반 제한 규정들이 크게 완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고 완화의 속도 또한 매우 더딘 실정이다. 무역투자 자유지역의 경우 완전개방에 가까운 규제 완화의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배후지역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극대화 추진을 가속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외자도입 및 기술도입 관련 행정업무를 무역투자자유지역의 관리청으로 이양하는 등 기술도입 관련 행정업무를 무역투자 자유지역의 관리청으로 이양하는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또는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세제상의 각종 우대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외

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계상의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폭의 확대, 지분소유제한의 완화, 송금제한의 완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내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온 기존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술개발 및 첨단고도 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진외국기술의 이전, 접촉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첨단고도기술 부문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세계상의 지원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넷째, 토지사용 및 공장건축상의 우대조치를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용 관련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 임대, 장기사용권 부여 등 완전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첨단기술 보유 외국의 중소기업 또는 Venture Capital에 대해서는 장기저리 또는 일정기간 무상으로 임대공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토지취득관련 인허가를 내무부로부터 관리청으로 이관하여 간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역투자 자유지역 내에서의 공장건축시 건축법상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완화시켜 적용하고, 공업배치법상의 기존 공장 면적률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첨단기술업종의 공장 건물은 종래의 공장 형태와는 달리 일반 빌딩 형태로 건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첨단기술업종 일수록 연구원 등의 고급인력에 대한 배려를 위해 건폐율을 낮추고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인력사용 및 노사관계상의 우대조치도 요구되고 있다. 우선 출입국상의 편의 및 절차 간소화와 관리 및 기술인력에 대한 VISA 면제 등 자유로운 해외 고급인력의 활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유급휴가 등의 문제를 국제관례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항상 노사관계 문제를 영업활동상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배타적 국민감정으로 인해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있어 일정 수준의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 록> 광주 및 천안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현황

<부표 1> 개요

	광 주	천 안
○명 칭	광주외국인기업전용단지	천안외국인기업전용단지
○위 치	광주시 광산구 지족동, 장 록동	충남 천안시 차암동, 성성동, 백석동 일원
○규 모(㎡)		
- 총 면 적	933,668	787,600
- 공장용지 (임대)	655,551	491,834
(분양)	330,580	304,798
- 공공시설용지	324,971	187,036
	278,117	295,766
○사업시행자	광주광역시청	천안시장
○개발기간	'92. 12. ~ '95. 5	'92. 12. ~ '96. 6
○공사진행정도	조성공사 완료	'95. 1 부지공사 착공
○입주가능시기	'95. 6	'96 하반기

<부표 2> 입지여건 및 분양가격

	광 주 공 단	천 안 공 단
도 로	호남고속도로 인접(4km)	경부고속도로 인접 (5km)
철 도	호남선 철도 인접(송정리역에서 1km)	경부선 및 신설예정인 고속전철 기착지
항 만	목포항에서 80km	아산항에서 40km
공 항	광주공항에서 5분 이내(3km)	김포공항이용, 신설예정인 청주공항과 근거리(45km)
용 수	주암댐에서 55.6천톤/일 공급	1차 : 상수도 및 지하수로 공급 2차 : 대청댐 광역상수로에서 공급
전 력	평동변전소 신설 예정	서천안변전소에서 인입
통 신	광주전신전화국에서 2,800회선 공급	천안전신전화국에서 1,600회선 공급
노동력	광주시 주변인력(125만) 풍부	천안시 주변인력(23만) 풍부
분양가격	88,515원/㎡	155,000원/㎡

〈부표 3〉 우대조치

구 분	우 대 조 치
토지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된 용지에 대한 소유권 인정 • 신고만으로 토지 취득 가능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업종 : 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를 처음 5년간은 100%, 그후 3년간은 50% 감면 • 출자목적 도입 자본재 :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해외차입 허용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분야 : 투자금액의 100% 일반제조업 : 투자금액의 50% • 상업차관 : 고도기술 분야 업체의 시설재 도입시 소요자금의 100% 범위 내에서 허용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수리처리기간 : 30일 → 즉시 • 도입자본재의 처분·목적외 사용 : 사전허가 → 사후관리기간 경과후 허가불요 • 입주기업 수입시설재 : 수입선 다변화 적용 완화 • 외국인 연수생 우선 배정

[참 고 문 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내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황과 특성」, 1993. 12.
- , 「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운영현황과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1994. 5.
- 마산수출자유지역 기업협회, 「아시아 주요국의 자유무역시대 운영현황과 관련제도 비교연구」, 1992. 10.
- 산업연구원, 「마산 수출자유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990. 6.
- , 「투자자유지역의 설치 및 제도구축방안」, 1994. 2.
-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과 강화방안」, 1992
- 상공자원부, 「외국인 투자기업 실태조사 결과」, 1994. 1.

- 재무부, 「외국인 투자 동향」, 1994. 2.
- ILO/UNCTC,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Export Processing Zones*, 1988.
- UN, *Export Processing Free Zones in Developing Countries : Implications for Trade and Industrialization Policies*, 1985.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3 —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Integrated International Production*, 1993.
- UNIDO, *Export Processing Zones in Transition*, 1988.
- Spinanger, D., “Objectives and Impact of Economic Activity Zones-Some Evidence from Asia”, *Wirtschaftliches Archiv*, Bond 120 Heft 1, 1984.
- Warr, P., “Export Processing Zones”, in C. Milner(ed.), *Export Promotion Strategies : Theory and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1990.